

2011.4월 땅값 0.10% 상승, 안정세 유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1.4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10%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전 고점(08.10월)에 비해서는 1.82% 낮은 수준이다. 토지거래량은 총 225,846필지, 201,804천㎡로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필지수 기준 11.2% 증가, 면적 기준 5.8% 감소.

그러나 최근 5년간 동월 평균 거래량(223천필지)보다 1.3%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0.12%, 인천 0.06%, 경기 0.11%이며, 지방은 0.04~0.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시흥시 등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상업지역(0.07%), 비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0.11%)이 상승폭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상승세는 전월과 비슷하며, 지역별로는 전(0.14%)의 상승폭이 꾸준히 증가, 그외 지역들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4월 토지거래량은 총 225,846필지, 201,804천㎡로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 11.2% 증가, ② 면적 5.8% 감소 하였고, 전년 동

월(2010.4월) 대비 11.2% 증가한 수준의 토지거래량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동월 평균 거래량(223천필지)보다 1.3% 증가한 수준에 불과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3.2%), 공업지역(7.8%), 상업지역(5.9%)의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이용상황(지목)별로는 대지(19.1%), 공장용지(13.5%)의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친목회 담합행위 시 “소속중개업자 업무정지 처분”

2년 2회 위반 시 등록취소...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2011.5.19)됨에 따라 시행

일 : 2011.8.20) 동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

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영업소, 3대 중 2대가 하이패스

5월 11일, 전국 최초 하이패스 이용률 66.7% 달성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지난 5월 11일 경부고속도로 판교영업소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3대 중 2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한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판교영업소를 통행한 전체차량 106,941대 가운데 하이패스를 이용한 차량은 모두 71,420대로 이용률이 66.7%에 달했다.

이는 하이패스 이용 전국 영업소 평균인 54%보다 12.7%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개통 당시 16%에 불과했던 하이패스 이용률은 3년여 만에 54%까지 향상됐다.

4월말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 군포영업소 등 15개 영업소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60%를 넘어섰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영업소, 남해고속도로 내서 영업소 등 21개 영업소는 55%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하이패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객들의 공감

과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취발유를 사용하는 2,000CC급 승용차에 대한 주행실험 결과 하이패스를 1회 통과하면 이산화탄소는 24~42g이 줄어들고 연료 소모량은 10~18ml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발유 가격을 리터당 2000원이라고 보면 연료비는 20원에서 36원까지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하이패스 차로 품질개선 등 서비스 증진을 통해 다가오는 2020년까지 하이패스 이용률을 80%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통건설협회 코스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박덕흠 KOSCA(대한전통건설협회) 회장 (재경윤천향우회 회장)은 건설관련 협회 최초로 '코스카 모바일 웹'을 개발, 1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회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협회 뉴스, 공지사항, 제도사항 등 15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특히 회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LH, 공동주택 친환경 마감재 옵션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친환경 마감재 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5월부터 분당서울대 병원 피부과에 의뢰해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시공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친환경 자재 사용이 아토피 환자의 가려움 등 증상 회복에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목수수, 소나무, 황토 등으로 만든 자연소재 벽지와 천연 강화마루 등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용은 가구당 170~180만원가량 소요되며, 입주예정자가 분양가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LH관계자는 "친환경 자재를 기본 마감재로 넣으면 시민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옵션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친환경 마감재는 오는 9월 공급하는 인천 서창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556가구)부터 적용된다.

2011 워크숍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명국)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협회 회장단과 이사, 감사, 윤리위원장, 전국 시·도회장, 설비조합 운영위원, 협회 및 조합 임·직인, 시·도회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설비건설 2011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8대 집행부의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숍은 제8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출정식과 함께 회원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폭등의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 도량질의 기자재 사용, 성실시공 등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가수주 방지 및 성실시공 다짐'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살짜기 식 저가수주행위 억제, 적정공사비 확보 및 성실시공으로 신뢰받는 설비건설인상 정립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 개발과 상생협력 실천에 솔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끊임없는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 경쟁력 향상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하여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

또한 협회와 조합에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짐은 물론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설비건설 업계 발전을 위해 매진 하기로 결의했다.

주택착공 · 분양 전월비 각각 53%, 64% 증가

4월 주택 공급동향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주택착공실적을 발표하였다.

11.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5,332호, 수도권 20,987호이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29,616호, 아파트외 15,716호, 사업주체별로는 공공 6,120호, 민간 39,212호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전국 53%, 수도권 23% 각각 증가하였다.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0,831호, 수도권 14,660호이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3,471호, 아파트 외 7,360호, 사업주체별로는 공공 7,986호, 민간 12,845호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전국 16%, 수도권

2% 각각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전국 16% 감소, 수도권 17% 증가하였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와 용산, 마포 등 중규모 이상의 아파트 준공으로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29,034호, 수도권 17,846호이며, 주택유형별로는 분양 22,124호, 임대 3,213호, 조합 3,697호 사업주체별로는 공공 4,920호, 민간 24,114호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전국 64%, 수도권 134% 각각 증가하였고, 최근 5년 평균 대비로도 전국 42%, 수도권 68% 각각 증가하였다.

대우건설, 알제리 물산업 진출 '발판'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알제리 바라키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의 공동 수주를 위한 해외환경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우건설은 환경공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 입찰예정인 이 사업 수주에 도전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환경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라키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는 하루 15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30만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2천여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1989년 알제리 건설시장에 진출한 대우건설은 기존 토목·건축사업뿐 아니라 환경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지난해 3월 알제리 수리국과 '알제리 엘하리쉬 하천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www.LH.or.kr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

당신의 수많은 일상 중에서 기억되는 특별한 날 더 큰 행복을 위해 LH가 함께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준 보금자리주택

어르신들의 새로운 출발 실버사원 일자리 창출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시민생활자금 마련

국민 한분한 분께 배려를 더한 맞춤형 임대주택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친환경 놀이터 마련

LH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지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실버사원과 청년인턴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오찬한 국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가요, 더 나은 미래 LH